

새로나온 책

▲극락세계2=부처님이 관무량수불경을 설하시게 된 이유는 불쌍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16가지 선정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이 16가지 관법과 함께 끊임없는 염불과 찬탄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길임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공파스님이 번역했다. <불광출판부, 6천원>

▲동양철학 서양철학과 어떻게 다른가=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저자 양재효교수(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는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비교 분석하면서 동양종교를 비교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동양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살핀다. <소나무, 9천5백원>

▲정화의 빛=정화사 해명선원장 현호스님이 내놓은 심신정화의 명상시집. '불발불됨들음들음들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정화를 이루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다.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 문제가 곧 아이들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미래문화사, 7천원>

▲우리 아이 큰사람 만들기=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인 함중환의원의 수상집.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보다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 문제가 곧 아이들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미래문화사, 7천원>

# 중국철학의 요체는 불교

## '중국 고대철학문제 발전사' 번역 5권 출간

### 인성·지성·이상적 삶 등 심층 분석 고승·철학자의 사상 통사적 접근



사람들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앎과 행위중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상적 삶은 어떻게 규정돼 왔는가. 중국 인민대학 방립천(方立天) 교수의 저서 <중국고대철학문제 발전사>를 번역한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중국철학과 이상적 삶의 문제>(예문서원 권)는 불교의 지행(知行)·인성(人性)·이상적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른 종교나 사상과 비교해 살펴면서 이런 의문들을 풀어준다.

이 3권의 책은 선진시대의 노자 공자에서부터 위진남북조, 수당, 양송, 명청시대 등의 스님과 철학자 등 인물이나 학파를 위주로 한 통사체(通史體)적 접근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는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이자 하나의 철학이다. 맹자의 성선론과 순자의 성악론과 같은 인성론에서도 불교의 관점은 명백히 나타나 있다. 중국 진대의 불교학자 축도생(355~434)과 혜능선사는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선한 성(善性)'이라고 규정했다. 불성이 중생의 본성이자 최고의 지혜이

며 공극적인 진리이자 중생의 실체라고 본 것이다.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의 철학적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철학의 특징이 선명히 드러난다. <중국철학과 인성문제>(박경환 역)는 이외에도 도가의 자연중심주의적

인성론과 함께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담겨있다.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김학재 역)는 불교의 다양한 지행관을 설명하고 있다. 동진시대 혜인스님의 선과 지(智)를 함께 중시해야 한다는 '선지병중(禪智并重)

론'과 축도생의 '돈오성불설' 천태종 창시자인 수당시대 지의의 '정혜쌍수'는 앎과 행함 모두가 중요하다는 '지행병중(知行并重)'의 지행관임을 드러내 보인다. 저자는 불교의 종교적 지행 학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 방법과 결합한 것은 서양의 지행 학설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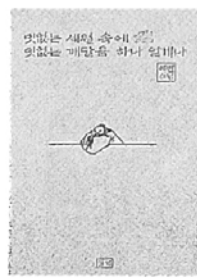
<중국철학과 이상적 삶의 문제>(이홍용 역)는 불교가 삶의 문제를 해명하고 그 해답의 제시를 기본과제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인과응보론과 같은 조건론을 이상적인 삶의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칫 인생을 맞추어 볼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방립천은 중국불교와 철학을 연구해 왔으며, 이 책 역시 중국 불교철학이 중국 철학에 끼친 영향 및 작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고대철학문제 발전사>는 모두 5권으로, 이들 3권에 앞서 <중국철학과 우주본체의 문제> <중국철학과 인식의 문제> 두 권은 이미 번역 출간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 덧없는 세월속에... 헤민스님 지음

#### 출가인연과 수행 담담하게 적어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 하나 얻게나>는 헤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걸쳐있는 진영들을 모은 자전적 에세이. 출가의 인연과 세상의 덧을 벗어난 자유로움, 맑게 행귀낸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선다. 어렸을 적의 아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통렬한 해학, 그리고 침묵, 거친 세상 속에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가다듬으란 가르침이 가득하다.

"불교의 밀림 속에서 들여다 본 자유는 난민이 아닌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처절한 허망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담담하게 독백하듯 내밀한 독경소리로 열린다. <돌녘, 7천원>

### 화제의 책

#### 백년도 못살 인생... 윤창광 지음

#### 자장율사 구도적 삶 소설로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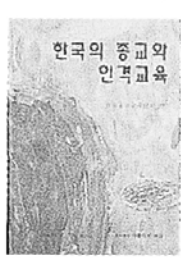


'사람의 한평생은 참으로 잠깐이다. 좋은 일, 착한 일만 하기에 모자라거든, 하물며 어찌 감히 나쁜 짓, 치사하고 더러운 일에 정신이 빼앗길 것인가. 저 백골을 똑똑히 보아라' 선종량은 원님이라는 절을 짓고 백골관을 댈기 시작했다.

백골관(白骨觀)이란 백골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여 재범무야. 재행무상을 깨닫는 수행방법. <백년도 못살 인생 무열 그리 탐하는고>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구도적 삶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승단의 계율을 바로잡고, 환풍사 9층탑을 건립해 국태민안을 발원했으며, 대국풍의 지리를 박차고 산중수행에 들어간 스님의 인간적 고뇌와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언어문화, 8천원>

### '한국의 종교와 인격 교육' 발간 교육풍토비판 대안제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펴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아름다운 세상)은 종교의 기능과 종교교육의 성격에 정교하고 면서 인격교육에 접근하고 있다. 또 인격교육에 대한 각 종교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했다.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가 현대의 인격교육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살폈다. 불교의 인격교육 이념은 누구나 부처와 같은 지혜와 자비를 지닐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교육도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야 한다는 것이요이다. 창조적인 지혜인, 실천적 자비인, 주체적 자유인을 기르는 교육의 실천은 인간을 본래 불성의 존재로 파악하고 불성과 깨달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불교가 피교육자의 존재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독교적 인격교육은 피교육자의 인격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오인탁 교수(연세대)는 개방적이고 대화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의 교육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현재의 교육 풍토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각 종교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일깨우고 있다.

### 진제스님 법어집 '엄화인천'

#### "온국민 생활속에서 선수행을"



"참선이라는 것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마음 속에 번민과 갈등이 없으므로 마음 광명의 지혜가 밝혀져서 만민에 앞선, 선견의 눈을 갖추어 태어날 때마다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년간 중생교화의 길을 걸어 온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이 4년전 <불사람 크게 웃네>에 이어 두 번째 법어집 <엄화인천>을 펴냈다. 여기에 실린 법어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짚다보면 남자와 모든 국민에게 선수행의 길을 가라는 깨우침이 행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우리말 왕생의례집' 나왔다



영가를 천도하는 왕생의례의식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말 왕생의례집>이 나왔다.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가 펴낸 <우리말 왕생의례집>은 상례·천도·제례 등을 집전하는 이와 동참한 이들 모두를 고려했다. 각종 의식문을 한글화해 동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식 순서대로 편집해 놓아 집전하는 이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추도의 노래인 왕생의식곡을 실어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다.

### 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

#### 월주스님 '애장도서 특별전' 동참

문화관광부와 KBS는 5월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민 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재도약의 지혜를 책 속에서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독서캠페인, 일일책방 및 알뜰 문화장터 등의 행사와 독서진흥 특별기 획공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도서 특별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추천한 <보현행원품>이 애장하게 된 사연과 함께 전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장도서 특별전은 5일까지 계속된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3	불교입문	조계종원부	조계종출판사
4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관자	세원출판사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6	선사들이 가려진 세상	신규탁	장경각
7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조 켈	여시아문
8	합선교육	현 달	수선출판사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10	밀교강좌	혜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원·에·스·님·수·상·집

# 열린마음 열린불교

##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울탄을 엮여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꺾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밟고 먼 길을 호르며 뛰 온 운수남자 지옥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옥 지음/7,000원

**동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동지마을 이씨 스님 법어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발번뇌**  
824편의 법문 중 여러 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알뜰의 구절을 골라 내 어 모았다. 현재준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립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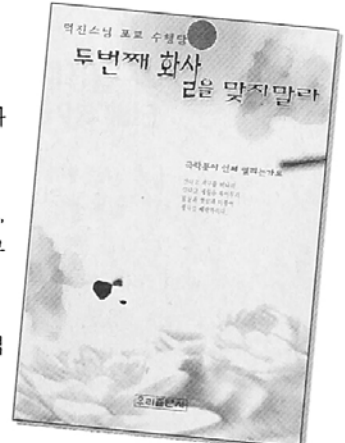
##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요약 '동해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겉돈을 매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밤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계앙의 화살을 맞은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